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 ⁶ E04H 13/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0년08월 16일 20-0193187 2000년06월08일
(21) 출원번호	20-2000-0007380	(65) 공개번호	
(22) 출원일자	2000년03월 15일	(43) 공개일자	
(73) 실용신안권자	황승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아파트 51-505		
(72) 고안자	황승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아파트 51-505		
(74) 대리인	이은숙		

심사관 : 구창모

(54) 가족 납골묘

요약

본 고안은 망자의 유골등을 보관하기 위한 납골묘에 관한 것으로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묘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이장하기에 용이하고, 또 화장을 한 후 유골을 담은 납골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며 고인의 유해를 함께 모실 수 있도록 구성된 가족 납골묘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중앙부에 유체가 안치된 관을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관 보관실과, 그 외측을 따라 다수의 납골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밀폐된 납골 보관실을 구성하여, 매장에 의한 봉분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 내에 걸친 선조들의 유체를 상기 봉분내에 화장하여 납골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납골묘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묘를 수 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 정서상 거부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한정된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1

색인어

납골, 묘, 유골, 관, 화장, 매장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제 1실시예에 따른 외부 형상이 원통형인 가족 납골묘의 구성도,
도 2는 도 1내 도시된 하측 받침판과 납골 보관실의 문짝과의 결합상태를 보여 주는 단면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결합상자의 구성도,
도 4는 도 1에 도시된 하측 및 상측 받침판과 납골보관실의 칸막이와의 결합상태를 보이는 단면도,
도 5는 도 1의 가로단면도,
도 6은 본 고안에 있어서, 봉분을 세운 상태에서의 사용상태도,
도 7은 본 고안의 제 2실시예에 따른 외부 형상이 육면체형인 가족 납골묘를 도시한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 | | |
|---------------|------------------|
| 10 : 관 보관실 | 20 : 납골보관실 칸막이 |
| 30 : 납골 보관실 | 40 : 납골보관실 문짝 |
| 41 : 문짝의 결합홈 | 50 : 결합상자 |
| 51 : 결합고리 | 52 : 결합고리의 슬라이드관 |
| 53 : 결합상자의 두껍 | 60 : 상측 받침판 |
| 70 : 하측 받침판 | 71 : 하측 받침판의 결합홈 |
| 80 : 관 | 90 : 납골함 |
| 100 : 봉분 | A : 결합부재 |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가족의 유골들을 한 곳에서 보관하기 위한 가족 납골묘에 관한 것으로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묘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이장하기에 용이하고, 화장을 한 후 유골을 담은 납골함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한 납골 보관실과, 고인의 유해 2구를 함께 모실 수 있는 관 보관실로 구성된 가족 납골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습상 화장을 기피하고 유체를 그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 사람 당 하나의 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민 정서의 성향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여의도면적에 해당하는 국토가 묘지로 변해가는 실정이므로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전국토가 묘지화 될 것임이 분명한 현실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요인 및 전통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래의 방법에 의해 고안된 다양한 형태의 납골당에 의한 묘지 조성방법이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기의 납골당에 의한 묘지 조성방법은 매장의 방법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서 화장에 의한 납골만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현재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유체를 그대로 관에 넣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에 의한 봉분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 대에 걸친 선조들의 유체를 납골당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납골묘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묘를 수 대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한정된 국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본 고안의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에 의한 가족 납골묘의 구조는 중앙으로 유체를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관을 보관하는 관 보관실과, 그 관 보관실을 중앙에 두고 묘의 외관 측면을 따라 칸막이가 형성되어 망자의 유골을 담은 납골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다단의 납골보관실과, 묘의 외관 상측과 하측에 외관형상을 따라 배치된 상측 및 하측 받침판과, 그 하측 받침판과 납골 보관실의 문짝을 결합 고정시켜주는 결합상자로 구성된다.

상기 다단의 납골 보관실 각각에는 개폐문짝이 붙어 있고, 그 각 문짝 하단부에는 결합 고리에 대응하는 결합홈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묘의 외관 상측과 하측은 외관형상을 따라 받침판이 형성되고, 상측의 받침판이 하측의 받침판보다 약간 길게 외부로 돌출되도록 형성하여 비 또는 눈등이 납골 보관실의 외벽에 잘 닿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상측 받침판과 납골 보관실의 칸막이, 하측 받침판과 납골 보관실의 칸막이의 결합부분은 금속 봉의 결합부재로 연결되어 상호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묘의 상측 받침판은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 보관실 상단부분이 개방된 상태로 구성되며, 관을 넣은 후 관 보관실 상측으로 봉분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된다.

이와 같은 가족 납골묘의 재질은 주로 석재로 이루어지며, 그 외관 및 형상은 원통형 또는 육면체형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에 의거하여 본 고안에 따른 가족 납골묘에 대한 구성과 작용을 상세히 서술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제 1실시예에 따른 원통형 가족 납골묘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족 납골묘의 중앙부에 위치한 유체가 안장된 관(80)을 보관하는 관 보관실(10)과, 그 관 보관실을 중앙에 두고 묘의 원주를 따라 칸막이(20)와 결합홈(41)을 가진 문짝(40)이 형성되어 망자의 유골을 담은 납골함을 보관하는 다단의 납골 보관실(30)과, 묘의 상측과 하측의 외주를 따라 형성된 상측 받침판(60)과 하측 받침판(70)과, 상기 납골 보관실의 문짝(40)과 하측 받침판(70)을 결합 고정시켜주는 결합상자(50)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결합상자(50)의 기능과 작동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면, 도 2와 같이 하측 받침판의 결합홈(71)과 납골 보관실의 문짝(40) 하단부의 결합홈(41)에 결합고리(51)가 끼워지는 결합홈이 동일 선상으로 성형되어, 결합상자의 결합고리(51)의 손잡이를 납골 보관실 문짝의 결합홈(41)까지 끼워 올린 후 결합상자 내부의 슬라이드관(52)의 상부에 위치한 가로홈에 그 손잡이를 돌려 끼우면 완전히 고정이 되어 문짝이 닫힌 상태로 유지된다. 납골 보관실의 문짝을 열 때에는 반대로 결합고리(51)의 손잡이를 돌려 아래로 내리면 문짝을 자유롭게 열 수가 있다.

도 3은 납골 보관실의 문짝의 개폐시에 사용되는 결합상자(50)부분을 상세하게 보이는 도면으로, 그 결합상자의 내부에는 결합고리(51)의 슬라이드 역할을 하는 관(52)이 용접 고정되어 있고, 그 슬라이드관(52)의 내부에는 하측 받침대와 납골 보관실의 문짝을 결합 및 분리시키는 결합고리(51)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결합상자는 도2와 같이 두경(53)을 가지고 있어, 평상시 납골 보관실의 문짝을 닫은 후 결합상자에 두경을 씌워 결합상자 위를 흙으로 덮어 둔 채로 있다가 납골 보관실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덮힌 흙을 걷어내고 두경을 연 후 결합고리를 사용해서 납골 보관실의 문짝을 열게 된다.

상기 상측 및 하측 받침판(70)과 납골 보관실의 칸막이(20)와의 결합은 도 4에 도시된 것처럼 그 결합부분의 내부에 금속 봉의 결합부재(A)가 끼워져 상호간에 결합이 이루어진다.

도 5는 도 1의 가로단면도로서, 묘의 중앙부는 관(80)을 넣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관 보관실(10)을 구성하며, 그 외부로는 각각의 납골보관실(30)들이 칸막이(20)에 의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 보관실(10)은 2개의 관(80)이 안치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며, 각각의 납골 보관실(30)에는 2개의 납골함(90)이 안치될 수 있다.

그리고 도 1에 도시된 묘의 상측은 중앙에 관을 넣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관을 넣은 후 상측으로 봉분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상측 받침판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본 고안에 따른 가족 납골묘는 도 6과 같이 유체를 관에 넣은 후 관 보관실에 안치한 후 그 위를 매장형태와 같이 흙을 덮어 봉분(100)을 세울 수 있도록 함과, 그 이외의 부분에 밀폐된 납골 보관실에 다수의 납골함(90)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도 7은 본 고안의 제 2실시예에 따른 육면체형의 가족 납골묘로서, 관 보관실(10)을 둘러싸는 납골 보관실과 상측 및 하측 받침판(60,70)의 형태가 사각형으로 형성된 것을 보이고 있다.

상기와 같은 가족 납골묘는 고인이 되신 분의 유체를 관 보관실에 보관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관 보관실의 유체를 화장하여 다시 납골 보관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가족 납골묘는 봉분을 세운 매장형식과 다수의 납골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대의 유골을 함께 보관할 수 있으며, 국민적 정서에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여러 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깨끗한 장지문화의 조성과 한정된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는 가족의 묘를 한 군데로 합쳐 모아두게 되어 성묘를 하는 후손들의 수고를 덜어주게 되며, 묘의 재질이 석재로 이루어지므로 그 외부의 형상을 더욱 수려하게 구성하여 조형물로 활용이 가능하며, 종래의 봉분에 비해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그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매장형식의 봉분과 화장형식의 납골당을 보완한 묘에 있어서,

중앙에 위치하며 유체를 안치한 관을 보관하는 관 보관실과;

상기 관 보관실의 외부를 둘러싸는 구조이며 칸막이가 형성되어 망자의 유골을 담은 납골함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다단의 납골 보관실과;

묘의 상측부에 놓여 납골 보관실을 형성하며, 관 보관실의 면적만큼 중앙이 개방된 상측 받침대와;

묘의 하측부에 놓여 납골 보관실을 형성하며, 결합고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결합구멍을 가진 하측 받침대와;

하단부에 결합고리가 끼워지는 결합홈을 가진 납골 보관실 문짝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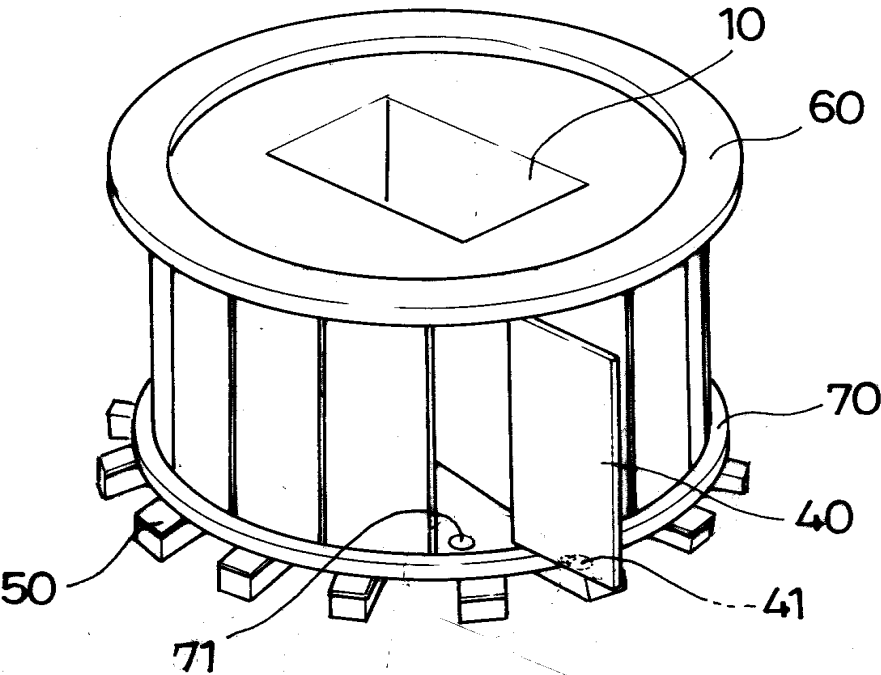
상기 하측 받침대와 납골 보관실 문짝을 결합고리를 통해 결합 및 분리시킴으로써 납골 보관실을 개폐시키는 결합고리와 슬라이드관으로 구성된 결합상자와;

상기 상측 및 하측 받침대와 납골 보관실의 칸막이를 결합시키는 금속 봉 형태의 결합부재로 구성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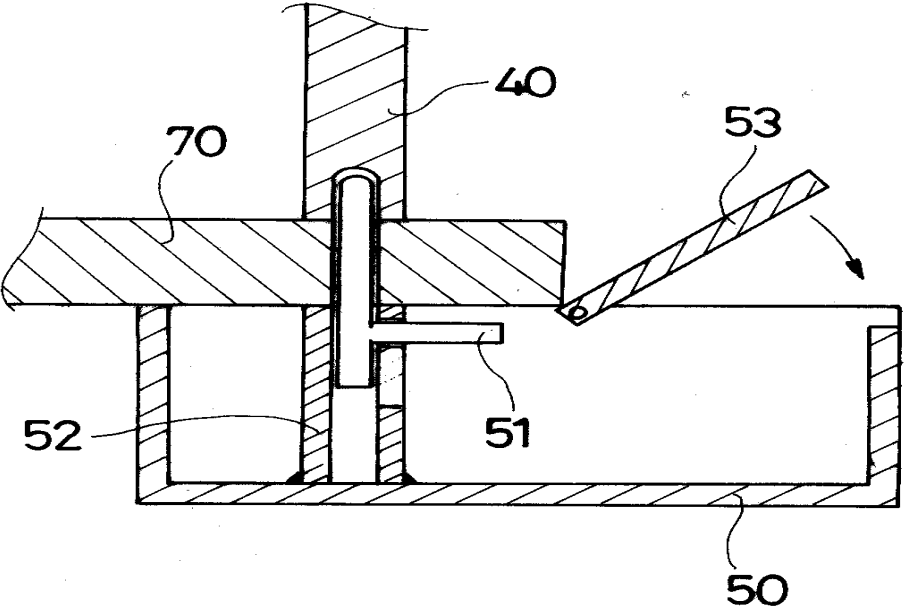
상측 받침판을 통해 관을 넣은 후 묘의 상부에 봉분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납골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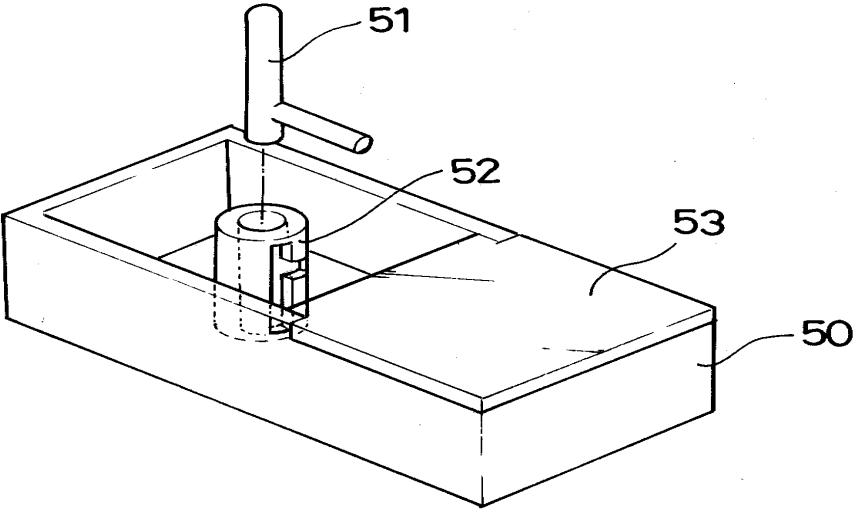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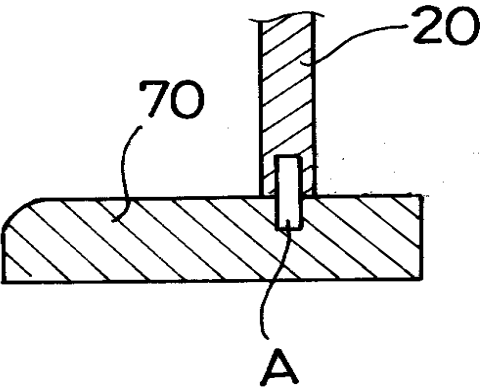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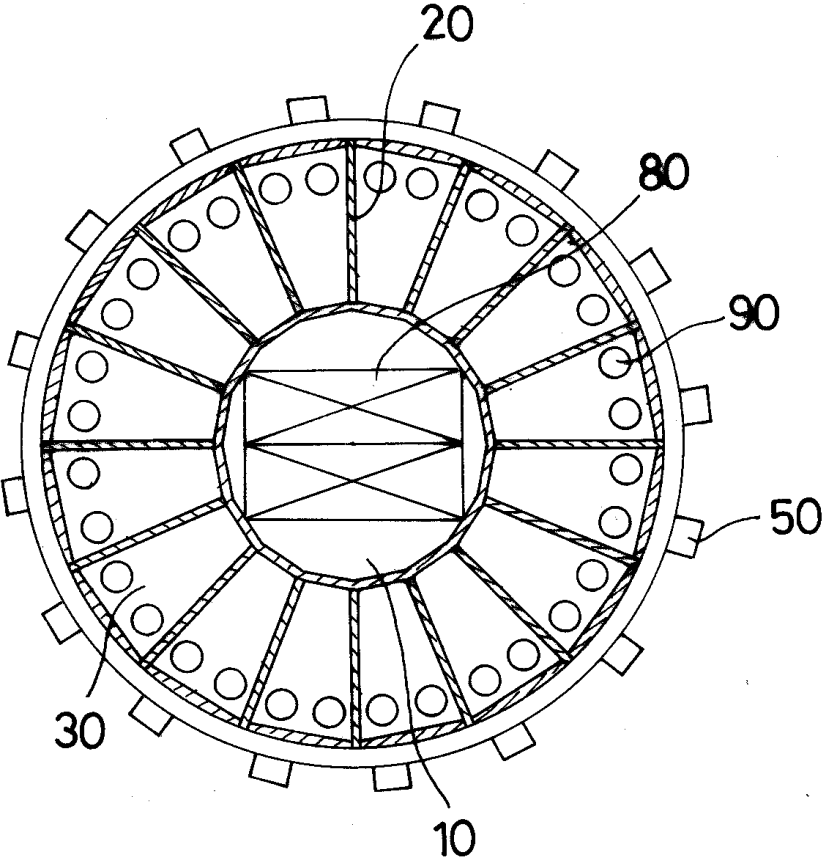
도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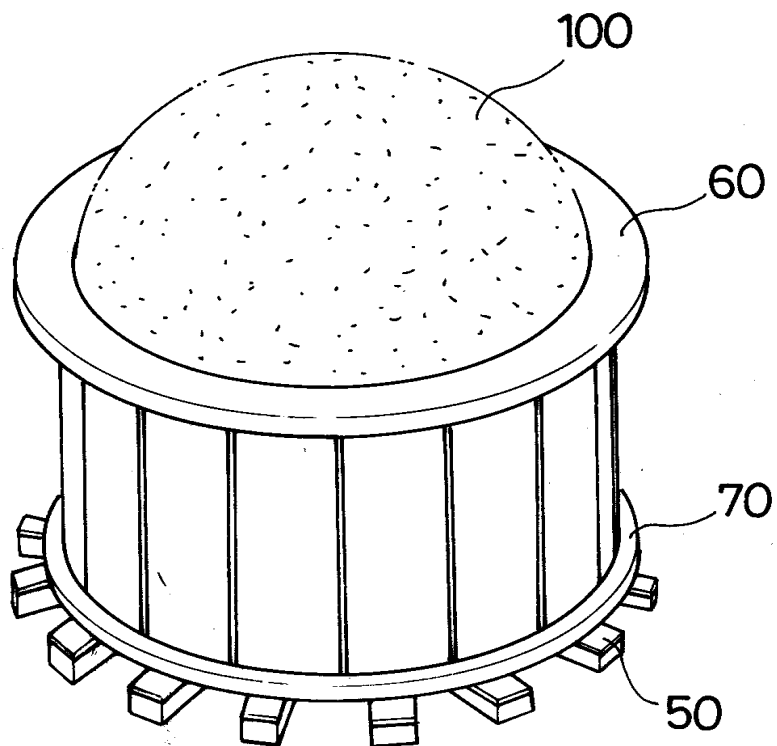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